El cumpleaños de Mamá (엄마의 생일)

1. 🗓️ Durante una semana, conté los días hasta el día D: El cumpleaños de mamá.
(일주일 동안, 나는 디데이인 엄마의 생일까지 날짜를 셌다.)
💡 : 'Conté'는 특정 기간(Durante una semana) 동안 완료된 동작이므로 Pretérito Indefinido(단순과거)를 사용했습니다.
2. 🎉 Finalmente, el día llegó.
(마침내, 그날이 왔다.)
💡 : 'Llegó'는 일회성으로 일어난 완료된 사건이므로 Pretérito Indefinido(단순과거)가 적절합니다.
3. 🎁 Estaba esperando con ansia este día porque había planeado diversas sorpresas para mamá.
(나는 엄마를 위해 다양한 서프라이즈를 계획했었기 때문에 이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.)
💡 : (Estaba esperando) 과거의 진행 중인 상태(기다리던 중)를 나타내기 위해 Pretérito Imperfecto(불완료과거) 진행형을 썼습니다.
💡 : (Había planeado) 기다리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계획을 세운 것이므로 Pluscuamperfecto(대과거)를 사용했습니다.4. ✨ Esperaba que le gustaran las sorpresas.
(나는 그녀가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기를 바랐다.)
✅ : (le gustan → le gustaran) 'Esperar que'는 희망을 나타내므로 뒤에 반드시 접속법이 와야 합니다.
💡 : 주절의 동사가 과거(Esperaba)이므로, '시제 일치'를 위해 접속법 현재가 아닌 접속법 과거(Imperfecto de Subjuntivo)인 gustaran을 사용해야 합니다.
5. ⏳ Sobre todo, esperaba terminar todo lo que tenía pensado hacer.
(무엇보다도, 나는 하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끝내기를 바랐다.)
✅ : (que pensando hacer → que tenía pensado hacer) 'pensando'는 현재분사로 단독으로 동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. '~하려고 생각했다'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'tener pensado + 동사원형' 구문을 사용합니다.
💡 : 여기서 tenía는 과거의 상태나 의도를 나타내는 Pretérito Imperfecto(불완료과거)입니다.
6. 🍳 Para comenzar, preparé el desayuno y se lo llevé a la cama.
(우선,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그것을 엄마의 침대로 가져다드렸다.)
💡 : 'preparé'와 'llevé'는 순차적으로 일어난 완료된 행동이므로 Pretérito Indefinido(단순과거)를 사용했습니다.
💡 : (se lo) 'se'는 간접 목적어(엄마에게, le -> se), 'lo'는 직접 목적어(아침 식사를)를 나타냅니다. 스페인어에서는 le와 lo가 연달아 올 때 le를 se로 바꿉니다.
7. ⏰ Tuve que despertarme temprano para eso.

(그것을 위해 나는 일찍 일어나야만 했다.)
🔗 : 'Tuve que'는 Tener que + infinitivo(동사원형)의 단순과거 형태로, 과거에 꼭 해야만 했던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.
🔄 : 'despertarme'는 재귀동사 despertarse의 1인칭 단수형이 동사원형 뒤에 붙은 형태입니다.
8. 🍞 Empecé tomando las rebanadas de pan de la bolsa y las puse en el plato.
(나는 봉지에서 빵 조각들을 꺼내기 시작해서 그것들을 접시에 놓았다.)
✅ : (sobre el plato → en el plato) 'en'은 '~에/안에/위에'를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전치사로, 접시에 무언가를 담거나 놓을 때 'sobre'보다 더 자연스럽게 쓰입니다.
💡 : (Empezar + gerundio vs. Empezar a + infinitivo) 'Empezar a tomar'는 단순히 행동의 시작에 집중하는 반면, 'Empezar tomando'는 아침 준비의 첫 번째 단계를 "빵을 집는 것으로 시작했다"는 방식/순서에 초점을 맞춥니다.💡 : (las puse) 'poner'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 불규칙 형태입니다. (poner → puse)
9. 🍓 Luego tomé un poco de jalea de la alacena y, con una cuchara pequeña, la unté sobre el pan. (그 후에 나는 찬장에서 잼을 조금 꺼내서 작은 숟가락으로 그것을 빵 위에 발랐다.)
✅ : (lo regué → la unté) 'jalea'는 여성 명사이므로 대명사 la를 써야 합니다. 또한 'regar'(물을 주다/뿌리다)보다는 잼 등을 바를 때 쓰는 untar 동사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.
💡 : (la unté) 'untar'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(Pretérito Indefinido) 형태입니다.
10. 🧃 Saqué un poco de jugo de naranja y yogurt del refrigerador. (나는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와 요거트를 조금 꺼냈다.)
✅ : (la refrigerador → del refrigerador) 'Refrigerador'는 남성 명사(el refrigerador)입니다. 전치사 de와 정관사 el이 만나면 del로 축약됩니다.
💡 : 'Saqué'는 Sacar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(Pretérito Indefinido) 형태입니다.
11. 🥘 Me pregunté a mí mismo dónde estaba la bandeja y tuve que buscar en dos armarios y la alacena antes de encontrarla.
(나는 쟁반이 어디 있는지 자문했고, 그것을 찾기 위해 두 개의 찬장과 식료품 저장실을 뒤져야 했다.)
✅ : (Me preguntó → Me pregunté) 내가 나 자신에게 물은 것이므로 1인칭 단수형을 써야 합니다. (mismo → mí mismo) 전치사 뒤에 오는 인칭 대명사 '나'는 강세가 있는 mí를 사용합니다.
🔄 : (Me pregunté) '자기 자신에게 묻다(자문하다)'는 의미로 재귀 대명사 me를 사용한 재귀동사 표현입니다.
🔗 : (tuve que buscar) 다시 한 번 '동사구' 구조가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.
12.🍱 Puse el plato, los sándwiches, el jugo de naranja, un vaso, el yogurt y una pequeña cuchara en la bandeja.
(나는 접시, 샌드위치들, 오렌지 주스, 컵 하나, 요거트 그리고 작은 숟가락을 쟁반에 놓았다.)

✅ : (en el bandeja → en la bandeja) 'Bandeja'는 여성 명사입니다. 또한 'en'은 'sobre'보다 더 일상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입니다.
💡 : (Puse) 'Poner'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 불규칙 형태입니다.
13. 🛏️ Estoy muy contento de que el cuarto de mamá esté en el primer piso.
(엄마의 방이 1층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.)
✨ :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(Estoy contento) + de que 뒤에는 반드시 **접속법 (Subjuntivo)**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'está'가 아닌 접속법 현재 형태인 esté를 아주 정확하게 쓰셨습니다.
14. 🪜 No creo que hubiese podido caminar por las escaleras con la bandeja.
(쟁반을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.)
❓ : No creo que는 의심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므로 뒤에 반드시 접속법이 옵니다.
✨ : (hubiese podido) 접속법 과거완료(Pluscuamperfecto de Subjuntivo)입니다. 과거에 일어날 수 있었던 가상의 상황("만약 계단이 있었다면 ~하지 못했을 것이다")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.
15. 👮 Ese día, mi papá fue mi cómplice.
(그날, 우리 아빠는 나의 공범(조력자)이었다.)
💡 : 'fue'는 Ser 동사의 3인칭 단수 단순과거(Pretérito Indefinido) 형태입니다. 특정 시점(Ese día)에 아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.
🎟️ : 'cómplice'는 원래 '공범'이라는 뜻이지만, 여기서는 깜짝 파티를 함께 준비한 '든든한 조력자'라는 재미있는 뉘앙스로 쓰였습니다.
16. 🚪 Él dejó la puerta abierta para que pudiese entrar en la habitación.
(그는 내가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.)
✅ : (entrar la habitación → entrar en la habitación) 스페인어에서 특정 장소로 '들어가다'라고 할 때는 전치사 en(또는 a)이 필요합니다.
✨ : (para que pudiese) 'Para que'는 목적을 나타내며 항상 접속법을 동반합니다. 주절의 동사가 과거(dejó)이므로 시제 일치를 위해 접속법 과거인 pudiese를 사용했습니다.
17. 😊 Al verme con la bandeja, a mi mamá se le dibujó una sonrisa en la cara. (쟁반을 든 나를 보고,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.)
✅ : (mi mamá puso la sonrisa → a mi mamá se le dibujó una sonrisa) '미소를 짓다'는 단순히 'poner'를 쓰기보다 '얼굴에 미소가 그려지다(dibujarse)' 또는 'sonreír(웃다)'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.
💡 : (Al verme) 'Al + 동사원형'은 '~할 때' 또는 '~하자마자'라는 의미의 시간 표현입니다.
18. 🛏️ Puse la bandeja en la cama cuidadosamente.
(나는 침대 위에 쟁반을 조심스럽게 놓았다.)
✅ : (a la cama → en la cama) 장소의 표면 위에 놓는 것이므로 전치사 en이 더 적합합니다.
💡 : (Puse) 1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 불규칙 형태입니다.
🎟️ : (cuidadosamente) '부사'로, 동작을 어떻게(조심스럽게) 수행했는지를 설명합니다.
19. 🥪 Le dije que le había preparado unos sándwiches.

💡 : (Le dije) 'Decir'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
💡 : (había preparado) Pluscuamperfecto(대과거)입니다. 말한 시점(dije)보다 더 이전에 준비를 마쳤으므로 이 시제를 사용합니다.
20. 🥤 Le serví un vaso de jugo de naranja.
(나는 그녀에게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따라드렸다.)
💡 : (Le serví) 'Servir'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
🏷️ : (un vaso de) '한 잔의 ~'라는 뜻으로, 액체나 음료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 표현입니다.
21. 🥣 Cuando se terminó sus sándwiches, mamá se comió el yogurt. Era de fresa, su sabor favorito.
(샌드위치를 다 드신 후에, 엄마는 요거트를 드셨다. 그것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맛인 딸기 맛이었다.)
💡 : (se terminó) 'Terminar(se)'의 3인칭 단수 단순과거입니다.
💥 : (se comió) 남김없이 다 먹어 치우다라는 강조의 의미를 줄 때 Comerse(Se consumativo)를 사용합니다.
💡 : (Era) 'Ser' 동사의 불완료과거(Imperfecto)입니다. 과거의 상태나 성질, 맛 등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.
✅ : (savor → sabor) 스페인어에서 '맛'은 sabor라고 씁니다.
22.✅ La primera sorpresa que había preparado para ella había salido bien.
(그녀를 위해 준비했던 첫 번째 서프라이즈는 잘 끝났다.)
💡 : (había salido vs. salió) 'Había salido'는 다른 과거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완료된 결과를 보여줍니다. 반면 salió는 단순히 그 일이 과거에 "잘 끝났다"는 사실을 보고할 때 씁니다. 둘 다 가능하지만,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는 느낌으로는 'había salido'가 조금 더 풍성해요.
23. 🍴 Cuando mamá terminó el desayuno, retiré la bandeja y me la llevé de vuelta a la cocina. (엄마가 아침 식사를 마치셨을 때, 나는 쟁반을 치워서 다시 부엌으로 가져갔다.)
🏷️ : (retiré) '치우다' 또는 '물리다'라는 뜻의 retirar 동사를 사용하면 식사 후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.
🏷️ : (de vuelta) '다시', '되돌아'라는 표현으로 'de regreso'보다 일상 대화에서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.
🔄 : (me la llevé) '쟁반(la bandeja)을 가지고 갔다'는 의미로 재귀 대명사 me와 목적 대명사 la가 함께 쓰였습니다.
24. 🎁 Era tiempo de pasar a la segunda sorpresa.
(두 번째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시간이었다.)
💡 : (Era) 'Ser' 동사의 불완료과거(Imperfecto)입니다.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의 상황이나 배경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.
🏷️ : (pasar a) 다음 단계나 다른 주제로 '넘어가다'라는 뜻의 유용한 표현입니다.
25. 📼 Mientras mamá se bañaba, busqué en mi cuarto la tarjeta de cumpleaños que le había comprado con papá. (엄마가 씻는 동안, 나는 아빠와 함께 (미리) 사 두었던 생일 카드를 내 방에서 찾았다.)

💡 : (había comprado vs. compré) 'había comprado'를 사용하면 카드를 찾는 시점(busqué)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구매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어 이야기의 선후 관계가 더 뚜렷해집니다.
💡 : (Mientras mamá se bañaba) 엄마가 씻고 있는 도중에(배경 상황) 찾기 시작한 것이므로 'Mientras + Imperfecto' 구조를 사용합니다.
💡 : (busqué) 카드를 찾는 구체적인 행동은 단순과거(Indefinido)를 사용했습니다.
26. 🎨 Le deseé un feliz cumpleaños y le dibujé una imagen bonita en la tarjeta.
(그녀에게 생일 축하를 빌어주고 카드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었다.)
💡 : (Le deseé, le dibujé) 1인칭 단수 단순과거(Pretérito Indefinido)입니다. 과거에 일어난 연속적인 행동들을 묘사합니다.
🏷️ : (le) '그녀에게(엄마에게)'라는 의미의 간접 목적대명사입니다. 중복해서 사용되어 동작의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.
27. 💌 Cuando mamá entró a la sala, le ofrecí la tarjeta.
(엄마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, 나는 그녀에게 카드를 드렸다.)
💡 : (entró, ofrecí) 둘 다 완료된 과거 행동이므로 단순과거(Indefinido)를 사용했습니다.
🏷️ : (la sala) '거실'을 뜻하는 명사입니다.
🏷️ : (ofrecer) '제공하다' 또는 '드리다'라는 뜻의 동사입니다.
28. 🥰 Ella la leyó y estaba encantada.
(그녀는 그것을 읽었고 매우 기뻐했다.)
✅ : (deleita → encantada/deleitada) 주어가 엄마(여성)이므로 여성형 어미 -a를 사용해야 합니다. 일상에서는 encantada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.
💡 : (estaba) 기뻐하는 엄마의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므로 불완료과거(Imperfecto)를 사용했습니다.
29. 🤫 Pero papá y yo teníamos una sorpresa más para ella.
(하지만 아빠와 나는 그녀를 위한 서프라이즈가 하나 더 있었다.)
💡 : (teníamos) Imperfecto(불완료과거)를 사용하여 당시 우리가 서프라이즈를 간직하고 있었던 '상태'를 배경으로 설명합니다.
🏷️ : (Pero) 이야기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"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!"라는 느낌을 주는 아주 적절한 접속사입니다.
✅ : (una sorpresa más) "하나 더(more)"라는 의미로,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음을 나타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. 스페인어에서는 '하나 더'라는 추가의 의미를 나타낼 때 [명사 + más] 순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(예: un café más, un día más).
30. 🎬 "Hemos alquilado tu película favorita, mamá. Mientras la ves, papá y yo vamos a preparar la comida".
("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빌려왔어요. 엄마가 영화를 보는 동안 아빠랑 제가 점심(식사)을 준비할게요.")
💡 : (Hemos alquilado) Pretérito Perfecto(현재완료)입니다. 과거에 빌렸고 지금 그 결과가 유지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.

✅ : (vamos preparar → vamos a preparar) 'Ir a + 동사원형' (~할 것이다) 구조에서는 전치사 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🫓 : (comida) 여기서는 문맥상 '점심 식사' 또는 **'식사'**를 의미합니다. 스페인에서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인 점심을 주로 la comida라고 부릅니다.
💡 : (Mientras la ves) 엄마가 영화를 보고 있는 '동안' 일어날 일을 나타냅니다. 여기서 la는 영화(la película)를 가리키는 직접 목적대명사입니다.
31. 💖 "Muchas gracias, eso me hará muy feliz", respondió mamá.
("정말 고마워, 그게 나를 아주 행복하게 해 줄 거야", 엄마가 대답했다.)
💡 : (hará) Futuro Próximo(미래 시제)입니다. Hacer 동사의 3인칭 단수 미래형
32. 🍿 Papá llegó con palomitas de maíz.
(아빠가 팝콘을 가지고 오셨다.)
33. ❤️ Mamá adora las palomitas.
(엄마는 팝콘을 아주 좋아하신다.)
✅ : (la palomitas → las palomitas) Palomitas는 보통 복수형으로 쓰이므로 정관사도 복수 여성형인 las를 사용해야 성수 일치가 맞습니다.
💡 : (adora) Adorar 동사는 '숭배하다'라는 뜻도 있지만, 무언가를 '매우 아주 많이 좋아하다(love/adore)'라고 표현할 때 gustar보다 훨씬 강한 긍정의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.
34. 📺 Ella siempre las come cuando ve la televisión.
(엄마는 텔레비전을 볼 때 항상 그것들(팝콘)을 드신다.)
✅ : (Ello → Ella) '엄마'는 여성이므로 중성 대명사 Ello 대신 인칭 대명사 Ella를 사용해야 합니다.
💡 : (ve) '보다'라는 뜻의 Ver 동사 현재형입니다. '텔레비전을 보다'는 관용적으로 ver la televisión이라고 표현합니다.
35. 👨‍🍳 Cuando nos aseguramos de que mamá estaba cómoda, papá y yo regresamos a la cocina.
(엄마가 편안하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, 아빠와 나는 부엌으로 돌아갔다.)
✅ : (aseguramos que → aseguramos de que) 동사 asegurarse는 보통 전치사 de와 함께 쓰여 '~를 확인하다/확신하다'라는 의미를 만듭니다.
💡 : (estaba) 엄마의 상태(편안함)를 묘사하는 배경이므로 Imperfecto(불완료과거)를 사용했습니다.
💡 : (aseguramos, regresamos) 특정 시점에 완료된 구체적인 행동들이므로 Pretérito Indefinido(단순과거)를 사용했습니다. 1인칭 복수($nosotros$)의 단순과거와 현재형은 형태가 같음에 유의하세요.
36. 🥘 Nosotros sabíamos desde hace tiempo lo que queríamos preparar para el almuerzo y nos pusimos a trabajar inmediatamente.
(우리는 점심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싶은지 전부터 알고 있었고, 즉시 일을 시작했다.)
💡 : (sabíamos, queríamos) 과거의 '지속적인 상태'나 '생각'을 나타내므로 Imperfecto(불완료과거)가 적절합니다.

🔗 : (nos pusimos a + infinitivo) 'Ponerse a + 동사원형'은 '~하기 시작하다'라는 뜻으로, 여기서는 일을 시작한 '특정 시점'의 행동이므로 Indefinido(단순과거)를 사용했습니다.
37. 🥗 Hice una ensalada. Lavé las hojas de espinaca, los tomates y una manzana roja. (나는 샐러드를 만들었다. 시금치 잎과 토마토, 그리고 빨간 사과 하나를 씻었다.)
✅ : (salada → ensalada) 'Salada'는 '짠'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. '샐러드'를 뜻하는 명사는 ensalada입니다.
💡 : (Hice, Lavé) 요리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완료한 행동들이므로 Indefinido(단순과거)를 사용했습니다.
🍅 : 스페인어에서는 재료를 나열할 때 관사(los tomates)를 넣어주면 더 명확합니다.
38. 🥬 "Papá, he terminado de lavar las hojas de espinaca y los tomates". ("아빠, 시금치 잎이랑 토마토 다 씻었어요.")
✅ : (laver → lavar) '씻다'라는 뜻의 동사원형은 lavar입니다.
💡 : (He terminado) Pretérito Perfecto(현재완료)입니다. 방금 막 완료된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합니다.
🔗 : (Terminar de + infinitivo) '~하는 것을 끝내다'라는 뜻의 유용한 표현입니다.
39. 🥣 "Muy bien", respondió papá. "Ponlos en el gran tazón azul".
("잘했어", 아빠가 대답했다. "그것들을 커다란 파란색 사발에 담으렴.")
💡 : (Ponlos) Poner 동사의 긍정 명령형인 pon에 직접 목적대명사 los가 결합된 형태입니다. 긍정 명령형에서는 대명사를 동사 뒤에 붙여서 씁니다.
💡 : (los) 여기서 los는 앞에서 씻은 '시금치 잎들과 토마토들'을 가리킵니다. (여성 복수와 남성 복수가 섞여 있으므로 남성 복수형인 los를 사용합니다.)
📏 : (gran + 명사 + azul) - 형용사 나열 규칙) 스페인어 형용사는 보통 명사 뒤에 오지만, 성질에 따라 위치가 달라집니다.

1. Adjetivo antepuesto (명사 앞): Gran은 grande의 단축형(Apócope)으로, 명사 앞에서 '위대한/훌륭한/커다란' 등의 주관적 강조나 가치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.
2. Sustantivo (명사): tazón (사발)
3. Adjetivo pospuesto (명사 뒤): azul (색깔)이나 물리적 형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뒤에 옵니다.
4. ✨ Tip: [강조 형용사] + [명사] + [객관적 성질/색깔]의 순서로 기억하세요!

40. 🍋 Papá cortó la manzana en pedazos y exprimió un limón encima para que la manzana no se empezara a manchar.
(아빠는 사과를 조각내어 자르고, 사과에 갈변이 생기지 않도록 그 위에 레몬 하나를 짜서 뿌리셨다.)
💡 : (cortó, exprimió) 아빠가 수행한 완료된 행동들이므로 Indefinido(단순과거)를 사용했습니다.
✨ : (para que + 접속법) '~하도록'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para que 뒤에는 항상 **접속법(Subjuntivo)**이 옵니다. (empezara) 주절의 시제가 과거(cortó)이므로 시제 일치를 위해 접속법 과거인 empezara를 썼습니다. 아주 훌륭한 문법 적용입니다!

🏷️ : (manchar) 사과가 갈변되는 것을 'manchar(얼룩지다)'라고 표현하셨는데, 스페인어에서는 사과가 산화되어 색이 변하는 것을 oxidarse 혹은 ponerse oscura/marrón이라고도 자주 표현합니다.

41. 🥬 Yo agregué las hojas de espinaca y los tomates. (나는 시금치 잎과 토마토를 넣었다.)

💡 : (agregué) Agregar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 -ar 동사 중 -gar로 끝나는 동사는 1인칭 단수에서 'g'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 'gu'로 변합니다. (agregar → agregué)

🏷️ : (agregar) 요리에서 재료를 '더하다' 혹은 '추가하다'라고 할 때 아주 자주 쓰이는 동사입니다.

42. 🥜 También agregué una bolsa de nueces.
(나 또한 견과류 한 봉지를 넣었다.)

🏷️ : (nueces) '견과류' 또는 '호두'를 뜻하는 nuez의 복수형입니다. 스페인어에서 -z로 끝나는 명사는 복수형이 될 때 -ces로 변합니다. (nuez → nueces)

43. 🧂 Para sazonarla, le agregué sal, pimienta, aceite de oliva y un poco de mostaza.
(간을 맞추기 위해, 나는 소금, 후추, 올리브유 그리고 머스터드를 약간 넣었다.)

✅ : (salzonarla → sazonarla) '간을 맞추다, 양념하다'라는 뜻의 동사는 sazonar입니다. 여기에 샐러드(la)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붙어 sazonarla가 되었습니다.

✅ : (agrequé → agregué) 위에서 배운 것처럼 agregué가 올바른 철자입니다.

✅ : (pimientos → pimienta) Pimiento는 '피망'이나 '고추'를 뜻하고, 가루 형태의 '후추'는 여성 명사인 pimienta를 사용합니다.

💡 : (le) 여기서 le는 '그것(샐러드)에'라는 의미로 사용된 간접 목적대명사입니다.

44. 🥗 La ensalada se veía deliciosa.
(샐러드가 맛있어 보였다.)

✅ : (delicioso → deliciosa) 주어인 La ensalada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도 여성형인 deliciosa를 사용해야 성수 일치가 맞습니다.

💡 : (se veía) Verse 동사의 불완료과거(Imperfecto)입니다. 과거의 특정 시점에 사물이 어떻게 '보였는지' 그 외양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.

45. ❄️ Cuando la ensalada estuvo lista, la pusimos en la nevera.
(샐러드가 준비되었을 때, 우리는 그것을 냉장고에 넣었다.)

💡 : (estuvo lista) Estar 동사의 3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 준비가 '완료된' 특정 시점을 나타냅니다.

💡 : (la pusimos) 여기서 la는 직접 목적대명사(샐러드를)이며, pusimos는 Poner 동사의 1인칭 복수 단순과거입니다.

🏷️ : (nevera) 냉장고를 뜻하는 단어로, 앞서 나온 refrigerador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.

46. 🐟 Luego preparamos el pescado sobre el papel de aluminio.
(그 후에 우리는 알루미늄 호일 위에 생선을 준비했다.)

✅ : (el papel de aluminio) Papel은 남성 명사이며, 전치사 de를 사용하여 재질을 나타내는 이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정확한 표현입니다.
💡 : (preparamos) Preparar 동사의 1인칭 복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 사실을 나열하는 이야기이므로 직설법 과거를 사용했습니다.
47. 📜 Agregué un poco de papel de aluminio y puse la hoja sobre la mesa.
(나는 알루미늄 호일을 조금 준비해서 그 한 장을 탁자 위에 놓았다.)
💡 : (un poco de papel) Papel은 남성 명사(el papel)이므로 'un poco de'와 함께 쓰여 '약간의 종이(호일)'라는 뜻을 가집니다.
💡 : (puse) Poner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 불규칙 형태입니다. (poner → puse)
🍃 : (la hoja) '장, 쪽, 잎'을 뜻하는 여성 명사입니다. 여기서는 호일 '한 장'을 의미하므로 여성 정관사 la를 씁니다.
48. 🐟 Papá trajo el pescado y lo puso sobre el papel de aluminio. (아빠는 생선을 가져와서 그것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으셨다.)
💡 : (trajo) Traer(가져오다) 동사의 3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 불규칙 형태입니다. (traer → trajo)
💡 : (lo puso) 여기서 lo는 '생선(el pescado)'을 가리키는 직접 목적대명사입니다.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.
49. 🔥 Papá luego colocó el pescado con el papel de aluminio sobre la bandeja y lo puso en el horno. (아빠는 그 후에 알루미늄 호일에 싼 생선을 쟁반 위에 놓으시고 그것을 오븐에 넣으셨다.)
💡 : (colocó) Colocar(놓다, 배치하다) 동사의 3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
💡 : (lo puso) 여기서 lo는 '생선(el pescado)'을 가리키는 직접 목적대명사입니다.
🍃 : (el horno) '오븐'을 뜻하는 남성 명사입니다.
50. ⏲️ El pescado se horneó durante veinte minutos. (생선은 20분 동안 오븐에 구워졌다.)
🔄 : (se horneó) Hornear(오븐에 굽다) 동사의 3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 여기서는 '구워졌다'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재귀 대명사 se가 함께 쓰였습니다.
💡 : (durante veinte minutos) 특정 기간(Duration) 동안 일어난 행동이며, 그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므로 단순과거 시제가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.
51. 🍹 Antes de empezar a preparar el postre, le traje a mamá un vaso de jugo de naranja.
(디저트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, 나는 엄마에게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드렸다.)
🔗 : (Antes de + infinitivo) '~하기 전에'라는 뜻으로, 전치사 de 뒤에는 동사원형(empezar)이 옵니다.
💡 : (le traje) Traer(가져오다)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 불규칙 형태입니다. (traer → traje)
52. 💬 "Me pregunto qué están cocinando ustedes", me dijo mamá.

("너희들이 뭘 요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",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셨다.)
✅ : (Me pregunto) 'Preguntarse'는 '자문하다/궁금해하다'라는 뜻입니다. 엄마가 직접 하신 말이므로 1인칭 현재형인 pregunto를 씁니다. (강세가 없음에 주의!)
💡 : (qué están cocinando) "무엇을 요리하고 있는지"라는 현재 진행형 표현입니다.
✨ : (me dijo mamá) "엄마가 나에게 말했다"라는 뜻으로, 문장 끝에 붙여 누가 한 말인지 밝혀줍니다. me dijo a mí라고 강조형을 써도 좋지만, 여기서는 주어인 mamá를 넣어주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.
53. 🤫 "¡Es una sorpresa, mamá!"
("그건 비밀(서프라이즈)이에요, 엄마!")
💡 : (Es) '이다'라는 뜻의 Ser 동사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.
✍️ : (Comma 사용) 누군가를 부를 때(호격)는 이름이나 호칭 앞에 쉼표(,)를 찍어주는 것이 문법적으로 더 정확합니다.
54. 👨‍🍳 Regresé a la cocina para ayudar a papá con el postre.
(나는 디저트 만드는 것을 아빠를 도와드리기 위해 부엌으로 돌아갔다.)
💡 : (Regresé) Regresar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 특정 행동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.
🔗 : (para + infinitivo) '~하기 위해'라는 목적을 나타내며 뒤에는 동사원형(ayudar)이 옵니다.
👥 : (ayudar a papá) 누구를 돕는지 명확히 할 때 전치사 a를 사용합니다. (Personal 'a')
55. 🍦 Empezamos con la crema chantilly.
(우리는 샹티이 크림으로 시작했다.)
💡 : (Empezamos) Empezar 동사의 1인칭 복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 -ar 동사의 1인칭 복수형은 현재와 과거 형태가 같으므로 문맥상 '과거의 사실'임을 알 수 있습니다.
🔗 : (Empezar con) '~로 시작하다'라는 표현입니다.
🍮 : (crema chantilly) 디저트에 빠질 수 없는 '샹티이 크림(생크림)'입니다.
56. 🥣 Abrí la caja de crema y la vacié sobre un gran tazón.
(나는 크림 상자를 열고 그것을 큰 그릇에 부었다.)
💡 : (Abrí, vacié) 둘 다 1인칭 단수 Indefinido(단순과거)입니다. 연속해서 일어난 완료된 행동을 나타냅니다.
🍮 : (vaciar) '비우다' 혹은 (그릇 등에) '붓다'라는 뜻의 동사입니다. 1인칭 단수 과거형은 vacié가 됩니다.
57. 🌀 Papá luego le puso una batidora eléctrica.
(아빠는 그 후에 거기에 전기 핸드믹서(거품기)를 대셨다.)
💡 : (puso) Poner 동사의 3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 불규칙 형태입니다.
🍮 : (le) '그것(그릇/크림)에'라는 의미의 간접 목적대명사입니다.
✅ : (batidora eléctrica) 생크림을 휘젓는(batir) 도구이므로 batidora가 가장 적절한 명칭입니다.
58.🥣 Sostuve la batidora dentro de la crema hasta que la crema se puso espesa.
(나는 크림이 걸쭉해질 때까지 크림 안에서 믹서기를 들고 있었다.)

💡 : (Sostuve) Sostener(지탱하다/들고 있다)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 tener 동사처럼 불규칙하게 변합니다. (sostener → sostuve)
🔗 : (hasta que) '~할 때까지'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. 여기서는 과거의 사실을 서술하므로 뒤에 직설법 과거(se puso)가 왔습니다.
🔄 : (se puso espesa) Ponerse + 형용사는 형용사한 상태로 변하는 '상태의 변화'를 나타냅니다. 크림이 액체에서 걸쭉한(espesa) 상태가 된 것을 아주 잘 표현하셨습니다.
59. 🧂 Le agregué seis cucharadas de azúcar.
(나는 거기에 설탕 여섯 숟가락을 넣었다.)
💡 : (le) '그것(크림)에'를 뜻하는 간접 목적대명사입니다.
💡 : (agregué) Agregar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입니다. 'g'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 'gu'로 변하는 규칙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.
✅ : (cucharadas) 요리에서 '한 숟가락 분량'을 말할 때는 cucharada를 사용합니다. Cuchara는 숟가락이라는 '도구' 자체를 의미합니다.
60. ❄️ Una vez que la crema chantilly estaba lista, la pusimos en un tazón en la refrigeradora.
(샹티이 크림이 준비되자마자, 우리는 그것을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.)
✅ : (pudimos → pusimos) '우리는 할 수 있었다'는 pudimos(poder)이고, '우리는 놓았다/넣었다'는 pusimos(poner)입니다. 여기서는 물건을 넣은 것이므로 pusimos가 맞습니다.
💡 : (estaba lista) 크림이 준비된 '상태'를 묘사하므로 불완료과거(Imperfecto)를 사용했습니다.
🔗 : (Una vez que) '~하자마자 / 일단 ~했을 때'라는 뜻의 접속사구입니다.
61. 🍽️ El pescado estaba listo, así que papá lo sacó del horno y lo puso sobre la mesa.
(생선이 다 준비되어서, 아빠는 그것을 오븐에서 꺼내 식탁 위에 놓으셨다.)
✅ : (la sacó → lo sacó) 가리키는 대상이 남성 명사인 el pescado이므로 직접 목적대명사도 남성형인 lo를 사용해야 합니다.
💡 : (estaba listo) 생선이 준비된 상태를 설명하므로 불완료과거(Imperfecto)를 사용했습니다.
💡 : (sacó / puso) 오븐에서 '꺼내고' 식탁에 '놓은' 완료된 동작들이므로 단순과거(Indefinido)를 사용했습니다.
🔗 : (así que) '그래서 / 따라서'라는 뜻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.
62. 🍓 Puse unas fresas frescas bajo el agua para lavarlas y luego las puse en un tazón.
(나는 씻기 위해 신선한 딸기들을 물에 대고, 그 후 그것들을 그릇에 담았다.)
✅ : (Le puse → Puse / Las puse) 문장에서 딸기들을 물 아래에 둔 것이라면 Puse나 Las puse를 사용합니다. Le는 간접 목적대명사(그에게/그녀에게)이므로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

🏷️ : (bajo el agua) '물 아래에' 혹은 '흐르는 물에'라는 뜻으로 요리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.
💡 : (las puse) 여기서 las는 앞에 나온 unas fresas를 가리키는 직접 목적대명사입니다.
63. 📣 "La película de mamá ya casi se ha terminado", dijo papá. "Ayúdame a preparar la mesa." (
"엄마의 영화가 거의 다 끝났구나", 아빠가 말씀하셨다. "식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렴.")
✅ : (se ha termino → se ha terminado) '끝나다'라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Presente Perfecto(현재완료)를 사용합니다. Haber + 과거분사(-ado/-ido) 형태이므로 terminado가 올바른 형태입니다.
🗣️ : (Ayúdame) Ayudar 동사의 2인칭 단수 긍정 명령형입니다. 여기에 나를 뜻하는 목적대명사 me가 동사 뒤에 붙었습니다. 명령형이므로 강조를 위해 Ayúdame처럼 앞에 강세(tilde)가 붙습니다.
🔗 : (Ayudar a + infinitivo) '~하는 것을 돕다'라고 할 때 동사원형 앞에 전치사 a를 사용합니다.
64. 📺 La película que mamá estaba viendo ya había terminado, así que apagué la televisión.
(엄마가 보고 계시던 영화가 이미 끝났기에,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.)
⏳ : (estaba viendo)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배경 상황을 묘사하는 과거 진행형(Imperfecto de estar + -ndo)입니다.
🕰️ : (había terminado) TV를 끈 시점보다 '더 과거'에 이미 영화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Pretérito Pluscuamperfecto(대과거)입니다. había + 과거분사 형태를 사용합니다.
💡 : (apagué) Apagar(끄다) 동사의 1인칭 단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 -gar로 끝나는 동사는 'g'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 'gu'로 변합니다. (apagar → apagué)
🔗 : (así que) '그래서'라는 뜻의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.
65. 🙈 Papá puso las manos sobre los ojos de mamá y la trajo a la cocina.
(아빠는 엄마의 눈을 손으로 가리시고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오셨다.)
💡 : (las manos) 스페인어에서는 신체 부위를 언급할 때 소유자(아빠)가 문맥상 명확하면 소유형용사(sus) 대신 정관사(las)를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.
💡 : (trajo) Traer 동사의 3인칭 단수 단순과거 불규칙 형태입니다.
66. 🎉 "¡Sorpresa!" gritamos al mismo tiempo.
("서프라이즈!"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.)
💡 : (gritamos) Gritar(소리치다) 동사의 1인칭 복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 -ar 동사의 1인칭 복수형은 현재와 과거 형태가 동일하므로 문맥상 '외쳤다'라는 과거로 해석합니다.
🔗 : (al mismo tiempo) '동시에'라는 뜻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.
67. 💖 "Es increíble", dijo mamá. "Muchas gracias, mis amores."
("정말 믿기지 않는구나(대단해)", 엄마가 말씀하셨다. "정말 고맙다, 내 사랑들.")
68. 🍴 Probamos la comida que papá y yo habíamos preparado.
(우리는 아빠와 내가 준비했던 음식을 맛보았다.)

😋 : (Probamos) Probar(맛보다/시도하다) 동사의 1인칭 복수 단순과거(Indefinido)입니다. 처음 음식을 먹어보는 설레는 순간에 아주 적절한 단어입니다.
🕰️ : (habíamos preparado) 음식을 맛본 시점보다 이전에 요리가 완료되었으므로 Pretérito Pluscuamperfecto(대과거)를 사용했습
69. 🥗 A mamá le gustó mucho la ensalada y el pescado.
(엄마는 샐러드와 생선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.)
✨ : (le gustó) Gustar 동사는 '주어'가 뒤에 옵니다. 여기서는 '샐러드와 생선'이 엄마를 기쁘게 한 주체입니다.
💡 : (le / a mamá) '엄마에게'라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간접 목적대명사 le와 전치사구 a mamá를 함께 사용했습니다.
✍️ : (gustó vs gustaron) 보통 주어가 복수(ensalada y pescado)면 gustaron을 쓰지만, 각각의 요리를 하나씩 떠올리며 말할 때는 단수형인 gustó를 쓰기도 합니다. (특히 첫 번째 명사가 단수일 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)
70. 🍓 Para el postre, tomamos las fresas con los dedos y las metíamos en la crema de chantilly.
(디저트로, 우리는 손가락으로 딸기를 집어 샹티이 크림에 찍어 먹곤 했다.)
💡 : (tomamos) Tomar의 1인칭 복수 단순과거입니다. 딸기를 '집어 든' 완료된 동작입니다.
⏳ : (metíamos) Meter(넣다)의 1인칭 복수 불완료과거(Imperfecto)입니다. 디저트를 먹는 동안 반복적으로 '찍어 먹던' 행동이나 그 당시의 풍경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.
🍓 : (las) 딸기들(las fresas)을 가리키는 직접 목적대명사입니다.
🖐️ : (con los dedos) '손가락으로/손으로'라는 표현입니다. 스페인어에서는 신체 부위 앞에 소유격(nuestros) 대신 정관사(los)를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. 주어가 '우리'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.
71. 🥰 Papá y yo estamos muy orgullosos: la comida estaba deliciosa y mamá estaba muy feliz.
(아빠와 나는 매우 자랑스럽다. 음식은 맛있었고 엄마는 매우 행복해하셨다.)
✨ : (Papá) '아빠'를 뜻하는 단어에는 항상 á에 강세가 붙어야 합니다. (강세가 없으면 교황이라는 뜻의 'papa'가 됩니다.)
💪 : (estamos orgullosos) 현재 우리가 느끼는 '상태'이므로 Estar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.
😋 : (estaba deliciosa / estaba feliz) 과거 당시의 음식 상태와 엄마의 감정 상태를 묘사하므로 불완료과거(Imperfecto)를 사용했습니다.